

# “비바람 강풍 속에서도...” 영암 왕인문화축제 ‘성료’

### 4일간 45만여명 찾아...주한외교사절 등 외국인도 대거 참석



영암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열린 '2018 왕인문화축제'가 비바람과 강풍 등 날씨 속에서도 45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성황을 이뤘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영암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열린 '2018 왕인문화축제'가 비바람과 강풍 등 날씨 속에서도 45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성황을 이뤘다고 9일 밝혔다.

주한외교사절이 행사장을 찾았다. 또 축제의 주인공인 왕인박사와 인연이 깊은 일본 히라카타시와 간지키시, 일한친선협회 일본방문단 등도 참석해 글로벌 축제로 한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축제의 첫 날인 4일에는 강풍과 비바람으로 개막행사와 축하공연이 당초 왕인박사유적지 축제장에서 영암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이승환 공연과 장미여관, 정동하, BMK 등이 출연한 KBS라이브 뮤직쇼 등 수준높은 공연은 관광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또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도포제춤다리기와 삼호강강술래, 갈곡소리 등 영암의 전통 3대 민속놀이와 영암교육 가야금연주단과 왕인 전통연희단 공연은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에는 외국인 2000여 명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여 명이 참여하는 기록을 남겼다. 또 백제 차문화 시연회 & 토크콘서트, 유복 및 유건 등 전통복장을 입고 현장백일장을 재현한 왕인박사 추모 한시 백일장과 백제 문화체험마을 등은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축제장 일원에 마련된 영암의 별미 먹거리 음식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관광객들은 낚지와 한우 등 별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영암 고유항토 음식관은 물론 푸드트럭, 백제문화 체험마을의 백제한상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를 즐겼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민속놀이와 다채로운 행사를 통한 명품축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경제축제로 거듭났다”면서 “축제기간 곳곳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사건사고 없는 안전축제, 세계인과 함께 하는 글로벌 축제로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담양군, 'K-Festival 2018'서 담양대나무축제 홍보

### '봄 여행주간' 기간 동안 관광객 유치에 총력



담양군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여의도 둔치에서 열린 'K-Festival 2018, 파이팅코리아 내 고향 페스티벌'에 참가해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 및 담양의 주요 관광지, 문화콘텐츠 등을 소개하는 담양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축제전문 대표 박람회로 축제 홍보를 통한 새로운 지역 관광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축제 관계자들의 교류와 협력은 물론 관광정보 교류의 귀한 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의도 봄꽃 축제기간에 개최된 'K-Festival 2018' 행사장에는 봄꽃 축제를 즐기려는 많은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를 비롯해 축북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랜드 등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 등을 알리는 홍보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2018 담양지명 천년의 해', '2018 담양방문의 해'를 부각해 봄 대표 축제인 '담양대나무축제'와 '봄 여행주간' 기간 동안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마량농토수산물시장 첫 개장... 5천명 관광객 몰려

### 꽃샘추위 속 방문객 5천명, 매출 4천7백만원 기록



지난 7일 열린 마량농토수산물시장이 활짝 문을 열었다. 남해안 최고 수산물시장으로 자리 잡은 마량농토수산물시장은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관광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들었다. 광주대학교와 협약, 북포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마량농토수산물시장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5천명이 넘는 관광객들로 북적대자 시장 밖 면소재지 식당과 상가들이 고객들로 가득 차 마량농토수산물시장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개장 당일 농토수산물시장은 4천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로 4년차에 들어선 강진 마량농토수산물시장은 청정비대야 미항, 제철 수산물을 통한 관광객 살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 개장행사는 어업인 및 지역상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마량농토수산물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강진군과 광주대학교 상호간에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의 성과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개장을 알리는 축하공연을 북포MBC 라디오 현장 녹화방송과 함께 진행해 '보약같은 친구'를 부른 진시몬, '꽃비림 여인'의 조승규 외에도 현진우, 김다나, 진해성 등 인기 가수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행사장이 발 딛을 틈없이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올해 마량농토수산물시장은 4월 7일 개장을 시작으로 10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강진 청지축제기간

을 합쳐 모두 39회 운영할 계획이다.

청정비대와 제철 수산물 등 유·복합을 통한 관광자원 연계 강화와 함께 3부, 3차 약속 등 운영전략 차별화를 통한 시장 운영, 농어업 소득 배가 원년의 해와 강진군의 올해 관광정책인 '2018 A로의 초대'를 활용한 방문객 유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마량농토수산물시장 부스는 6종 34 곳이다. 횡집 등 음식점 5곳, 수산물 좌판 7개, 건어물 판매장 5곳, 할머니장터 10개, 길거리음식 코너 5곳, 농특산물 판매장 2곳이다.

계절별로 신선한 수산물을 활용해 연중 20~30%에 이르는 특별한 인파를 추진하고 경품 행사를 활용한 이벤트를 다양하게 연다.

지난해 마량농토수산물시장은 27만 명이 방문해 2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4%가 증가한 24억원, 방문객 역시 4%가 증가한 28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병욱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A로의 초대,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와 함께 추진하는 마량농토수산물시장을 비롯한 군 정책과 프로젝트 등은 결국 강진 농수축산물의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민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 친환경 쌀 미국 수출길 오른다

### 13톤 첫 선적...수출쌀전문단지 재배쌀 올해 100톤 수출

해남 친환경쌀이 미국행 첫 수출길에 올랐다.

해남군과 평강항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윤영식)은 지난 4월 9일 평강항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 RFC에서 수출쌀 선적행사를 갖고 1차 13톤을 미국에 수출했다.

이번에 수출된 쌀은 해남군과 농촌진흥청이 해남 현산면과 계곡면 일대에 조성한 68.2ha의 수출쌀전문재배단지에서 생산한 친환경 가바

쌀 품종이다. 일반쌀에 비해 1.5배 가량 높은 가격에 수출, 미국내 16개 마켓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고급쌀 소비층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친환경 가바쌀의 수출은 이번 수출량을 포함 6월경 말레이시아, 8월경에 미국에 2차분을 수출하는 등 올해 총 100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쌀 소비량 감소와 공급과잉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해남쌀의 해외수출 확대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비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쌀 수출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수출용 쌀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 고품질 친환경 쌀 재배 매뉴얼을 적용해 재배, 외국 소비층 기호에 맞춰 가능성이 한층 강화됐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